서효인의 '소설처럼'

구도의 애도 - 유영은 외 '구도가 만든 숲'

최근 출간된 신예 작가 단편 앤솔러지의 표제작이자 신인 작가 유영은의 신작 단편인 '구도가 만든 숲'은 꽤 의뭉스러우나 지극히 현실적인 인물인 '구도'를 바라보는 화자 '나'의 진술로 이루어져 있다. 지방에 위치한 J시에 사는 구도는 몇 년 전 아르바이트로 일했던 냉면집의 주인이 작년에 죽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알고는 그 소식을 알려준 옛 아르바이트 동료인 나를 무작정 찾아온다. 나는 죽은 사장님의 조카로 그 가게에서 계속 일하고 있다. 일상은 전과 같다. 여름이면 매일을 허둥지둥 보내지만, 성수기가 지나고 겨울이 오면 "여분의 시간에 목이 졸리는 것"을 느끼며 그저 버틸 뿐이다.

그런 나에게 구도의 방문은 뜻밖일 수밖에 없다. 그는 단기 아르바이트 노동자에 불과했고, 이모의 조카라거나 친인척이 아닌데다 이모는 돌아가신 지도 1년이 지났으니까. 나는 구도가 이렇게까지 이모를 애도해야 함을 이해하지 못한다. 심지어 나는 구도의 얼굴조차도 희미하다. 구도와의 특별한 일화를 떠올리려 하지만 그마저도 별로 없다. 그럼에도 늦은 밤 도착하는 손님을 위해 나는, 고속버스터미널에 마중 나와 있다. 주말에 오면 좋겠다는 권유에도 불구하고 구도는 소식을 들었으니 바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드디어 구도가 도착했을 때, 눈에 보이는 건 이상하게도 부피가 크고 그에 비해 너무 가벼운 가방이었다. 나는 속내를 알 수 없는 구도의 행동과 행색에 알 수 없는 불안감과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나 구도의 의도는 명백했다. 그것은 자기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모(사장님)을 애도하고 추모하는 것이었다. 구도는 이모가 도심에서 유일하게 숨통을 트여 줬던 공간을 알았고, 그곳의 흙을 가방에 한가득 가져 온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가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흙을 자신이 만들고 있는 15평짜리 인공 숲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구도가 만드는 인공 숲은 무엇일까? 구도는 왜 인공 숲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 인공 숲을 만든 후 구도가 하려는 일은 무얼까? 구도는 일단, 그 모든 것을 '애도'라고 말한다.

10월 29일 있을 수 없는 참사가 서울 한가운데에서 벌어졌다. 156명이 죽었고 20대 희생자가 가장 많았다. 주최자가 없어 대비할 수 없었다는 사고 초기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말과 다르게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참사였음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안일했고, 비극은 이미 일어나 버렸다. 참사 직후 정부는 '국가 애도 기간'이라는 걸 설정하고 각 관공서에 조기를 게양하도록 했다. '근조' 표기가 없는 검은색 리본을 통일해 달게 하였으며 '참사' 대신에 '사고', '희생가' 대신에 '사망자'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기이하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애도를 장려하고 있다. 기간과 방식이 정해져 있는 애도를 애도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권에 대한 비판이나 책임을 추궁하는 일은 애도가 아닌 정쟁이라 매도당하고 있다. 리더라 할 수 있는 자들은 궁색한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보일 뿐이다.

수년 만에 반복된 거대한 참사 앞에서 우리는 울음을 섞어 물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애도란 무엇인가. 어떻게 애도해야 하나인가. 소설에서 구도는 어릴 적부터 정을 주었던 J시의 인공 숲이 시 당국에 의해 사라지자, 자신이 아꼈던 공간을 제 나름의 방식으로 되살리려는 프로젝트에 매진한다. 그것이 바로 15평짜리 미니 인공 숲을 조성하는 일이다. 추억하고 안타까워하기보다는 무엇이라도 해 보길 택한 것이다. 그리고 그곳을 애도의 뜻을 담은 흙으로 채우려고 한다. 구도에게 애도는 1년이 지났든 아니든, 흙을 반찬통에 담는 행위가 어색하든 아니든, 겨울이라 흙이 얼어 그마저 실패했든 아니든 상관없는 일이다. 구도의 관심은 사라진 공간, 사라진 존재 자체이고, 그것을 대하는 깊디깊은 마음이다. 그래서 구도는 몸을 움직인다. 무엇이든 하려 한다.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그 과정이 사라지는 존재, 떠나보내는 존재 모두에게 위로가 될 것임을 알기에.

구도가 어릴 때부터 마음을 주었던 공간이 자연의 숲이나 바다가 아닌 '인공 숲'이라는 것이 이 소설의 의미 심장함을 더한다. 구도에게는 주변에 가까운 것이 아닌 자연 숲이 아닌 내 곁의 인공 숲이 더 소중한 존재였다. 그날 이태원에 모인 이들도 그랬을 것이다. 핼러윈을 두고 외국의 문화에 빠진 젊은이들의 흡쓸림 정도로 해석하는 것은 사회적 참사를 수습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 반대로 왜 그들이 핼러윈이라는 인공 숲을 즐겼는지, 가만히 이해하고 들여다보는 게 애도의 시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의료칼럼

디지털 대전환, 교정 치료에도 예외는 없다

김 경 수
조선대치과병원 치과교정과
전임의

다양한 산업 분야에 걸쳐 광범위한 디지털 대전환이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큰 흐름은 치과도 피해갈 수 없다.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치과 솔루션의 발달로 X선 영상이나 3D CT 데이터와 치과용 3D 스캔 데이터를 자동 정합시키고 치아 분할 및 크라운 등의 보철물 디자인 시뮬레이션까지 자동화 작업이 수월해졌다. 그 덕분에 작업 피로도가 대폭 감소되고, 치료의 질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최근 들어 특히 교정 분야에서 이러한 흐름은 가속화되고 있다. 가철식 장치, 브라켓을 이용한 고정식 장치 교정, 설측 교정 등 전통적인 교정 치료 방식과는 달리 3D 안모(顔貌: 얼굴 생김새) 채득 스캐너, 치과용 디지털 구내 스캐너, 치료 시뮬레이션을 디지털상에서 가능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결과물을 출력하는 CAD-CAM과 3D 프린팅 등 일련의 장치와 과정을 이용하면 새로운 관점의 디지털 방식 교정 치료가 가능하다.

교정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안모 사진을 찍던 카메라를 대신해 이제는 3D 안모 스캐너를 통해 안모 데이터를 스캐닝한다. 안모 데이터는 파일 형태로 저장돼 손쉽게 X선 영상과의 정합이 가능해지고, AI를 이용한 정밀 분석부터 치료 전후 안모 변화를 삼차원으로 시뮬레이션해 시각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치아를 본뜨는 재료(인상재)에 물을 혼합하고 틀에 담아 입안에서 굳혀 음형을 만든 후, 그 음형에 석고를 부어 입안 상태를 복제해 내던 기존 방식과 달리 3D 디지털 구내 스캐너를 이용해 치아와 입안을 스캐닝한다. 스캐닝된 치아 모델도 마찬가지로 파일 형태로 저장돼 필요시 프린터를 통해 출력할 수 있고, 어디로든 쉽고 빠르게 전송할 수 있다. 교정 치과에 가면 쉽게 볼 수 있던 하얀색 치아 모델도 앞으로는 점점 보기 힘들어질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인상재 가루를 필요로 하지 않고, 물컹하고 차가운 치과 재료로 입안 본을 뜨는 과정이 생략돼 환자의 거부감도 없고, 시술자의 숙련도에 따른 영향도 비교적 덜 받아 재현성이 좋다.

교정 치료 후 결과를 예측해 보기 위해 치료 전 치아를 본 뜬 모형을 톱으로 하나씩 썰고 난 후 분리된 치아 모형을 손으로 일일이 배열해 보는 재래식 시뮬레이션은 사라진 지 오래다. 스캐닝된 파일을 디지털 소프트웨어에 입력시키기만 해도 AI를 이용해 치아를 분리하는 과정부터 치료 시뮬레이션까지 앉은 자리에서 모든 과정이 진행돼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준다.

정밀한 치아 이동 작업을 위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수정하고 확정된 치료 계획상의 치아 이동 경로와 기간도 예측이 가능하다. 치아 이동에 적합하게 장치에 부착될 장치 설계도 가능하다. 치료 계획상에 가장 이상적인 브라켓 위치를 디지털 시뮬레이션에 위치시켜 출력할 수도 있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맞춤형 브라켓을 설계해 제작할 수도 있다.

치아의 이동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고 그 단계마다 3D 프린팅 장치를 이용해 특수한 투명 플라스틱 소재로 된 치아 교정틀을 출력해 환자에게 전달, 단계별로 지속적이고 일정한 힘을 전달해 치아를 이동시키는 투명 교정 장치를 제작하기도 한다.

특히 이러한 디지털 대전환은 악교정 수술을 동반한 교정 치료에서 빛을 발한다. 수술 계획을 2차원적으로 설계하던 과거와 달리 X선 영상과 3D 안모 스캔 파일, 구내 스캔 파일을 정합해 3차원으로 구성해 환자의 실제 골격으로 정확한 양만큼 원하는 수술 계획을 확립할 수 있다. 또 수술 보조 장치를 제작해 수술 과정에 이용하면 수술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수술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다.

치료 후에도 마찬가지로 치료 계획과 치료 후 결과를 정합해 치료 계획대로 진행이 됐는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고, 교정 후 유지 기간 동안 사용될 유지 장치도 스캐닝된 파일만 있다면 언제든지 출력해 부착 혹은 전달할 수 있다.

전반적인 교정 치료 과정의 대부분이 디지털화가 가능해진 것이다. 물론 아직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완벽하지 않기에 진단부터 치료 과정까지 숙련된 전문가의 시선과 추가적인 손길이 필요하다. 현재의 큰 흐름은 '디지털 대전환'의 서막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기 고

광주 인물 도로명을 아시나요

서 민 호
평동중학교 교장

평동산단에 위치한 평동중학교는 체험 위주 교육 등을 하는 대안교육 특성화 중학교로서 월 1~2회 광산구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기관과 장소에서 교외 창의적 체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학년별 테마 체험으로 1학년은 황룡강 생태 체험, 2학년은 역사 문화 예술 체험, 3학년은 진로 직업 체험을 통하여 학교의 교육지표인 '멀리 보고 함께 가는 노마드 인재'를 기른다.

체험 장소와 관련 있는 인물인 월봉서원의 기대승, 어등산 의병전적지의 김태원, 용아 생가의 박용철, 포충사의 고경명 등을 교육하면서 자연스럽게 광주의 인물 도로명도 소개하고 있다. 그런데 학생들은 도로명이 광주의 어떤 인물과 연관이 있는지를 잘 모른다. 배운 후에도 오래 기억하지 못한다. 왜 그럴까?

현재 광주광역시의 주요 도로는 광주를 빛낸 역사적 인물과 연관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충장로(김덕령), 금남로(정충신), 제봉로(고경명), 죽봉대로(김태원), 눌재로(박상), 고봉로(기대승), 용아로(박용철), 하서로(김인후) 등이 있다. 대부분 인물의 호 또는 시호를 도로명으로 지었다. 도로 이름은 표지판이나 도로명 주소에서 자주 보게 되어 알 수 있는데, 정작 어떤 인물과 연관되어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특히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거의 대답하지 못한다. 광주를 대표하는 도로인 충장로가 김덕령의 시호인 '충장공'에서 나왔고, 금남로가 정충신의 군호인 '금남군'에서 나왔다는 것을 아는 시민과 학생이 얼마나 될까?

하지만 인물명을 그대로 사용한 임방울대로와 정율성로는 한 번 보고 들으면 그 도로가 어떤 인물과 연관되어 있는 지를 바로 알 수 있다. 체험 과정에서 한 아이가 "인물 도로명을 '임방울대로'처럼 사람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면 바로 인물을 떠올릴 수 있고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겠어요"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나도 그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래서 현 광주광역시장 인수위원회 시절에 운영한 '듣는다 우체통'에 광주의 인물 도로명 개편을 제안하였는데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다시 한 번 지면을 통해서 광주광역시에 요청하고 싶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명이 개편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안은 인물 이름으로 모두 바꾸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충장로는 김덕령로, 제봉로는 고경명로, 고봉로는 기대승로로 바꿀 수 있다.

두 번째 안은 오랫동안 사용해 온 이름을 바로 바꾸기가 어렵다면 이를 보완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충장로는 충장 김덕령로, 제봉로는 제봉 고경명로, 고봉로는 고봉 기대승로로 바꿀 수 있다.

세 번째 안은 위의 두 가지 안을 절충하여 광주시민이나 타 시도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 도로명은 첫 번째 안으로, 낯설고 생소한 도로명은 두 번째 안으로 바꾸는 방안이다. 예를 들면 충장로는 충장 김덕령로, 금남로는 금남 정충신로로 바꾸고, 그외 도로명은 고경명로, 기대승로, 김태원대로, 김인후로와 같이 인물명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도로명이 개편되면 도로의 시점과 종점 그리고 중간 중간에 도로와 연관 있는 인물에 대한 설명을 안내해 주는 표지석 또는 표지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도로명 개편이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기는 힘들지만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현 광주광역시장 임기 안에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지역 언론사에서 '광주 도로명 인물 열전'과 같은 제목으로 특별 기사를 기획하여 우리 고장을 빛낸 인물의 생애와 그 인물을 기억하거나 기념하는 장소를 자세히 소개하는 기사를 보고 싶다. 이러한 기사는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매우 훌륭한 NIE(신문 활용 수업) 교육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광주의 시민과 학생들이 광주를 빛낸 역사적 인물을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지역 자치단체와 언론사의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본다.

社 說

'이태원 트라우마' 심리 상담·치료 적극 지원을

이태원 핼러윈 참사 트라우마가 생각보다 심각하다. 참사 현장을 직접 경험한 사람과 희생자 유가족은 물론이고 언론 매체를 통해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목격한 일반 국민들까지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이태원 참사처럼 사고를 경험하면서 겪은 트라우마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라고 한다. PTSD는 전쟁·고문·자연재해·사고 등 심각한 외부 스트레스를 겪은 뒤 나타나는 정신적 장애를 광범위하게 말한다.

하지만 8년 전 세월호 참사나 이번 이태원 참사처럼 인재(人災)의 경우 사전 준비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받는 충격은 훨씬 크다. 세월호 당시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며 탄식하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해 곰곰히 생각해 보았다. 이번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다. 국민들은 사전에 대규모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했는데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고 사후에도 유가족과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고 있는 데 대해 실망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우리 지역에서도 이태원 참사 후유증으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녀를 수도권 등 타지에 둔 부모들은 매일 안부 전화로 안녕을 살피고 가능하면 직장을 부모가 있는 곳으로 옮기라고 호소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참사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본 사람들은 두통과 불안감, 죄책감에 시달려 심리치료센터에 상담을 신청하고 있다. 특히 10대, 20대들은 또래들이 희생됐다는 사실에 감정이 이입돼 우울감과 상실감, 수면장애 등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주시와 구청 등 자치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부가 운영하는 심리지원센터에선 전화 및 대면 상담을 통해 트라우마 치료에 나서고 있다. 당연한 대응이지만 유가족 등 참사 당사자는 물론 시민들이 '됐다고 할 때까지' 심리 상담과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되살아나는 거문도… '생태 휴식제' 확대해야

낚시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심각하게 훼손됐던 거문도의 생태계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년간 '생태 휴식제'를 통해 출입을 통제하고 해양 쓰레기를 수거한 결과다.

동도·서도·고도 등 세 개의 유인도가 교량으로 연결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여수시 거문도는 그동안 낚시객들이 대거 몰리면서 생태와 경관이 크게 훼손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와 국립공원공단은 지난해 9월부터 거문도 서도의 서쪽 해안을 '갯바위 생태 휴식제' 시범 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낚시객의 출입을 통제하고 주민·시민단체와 함께 생태계 회복에 힘썼다.

지난 1년 동안 낚싯대를 고정할 때 사용하는 폐납 272kg을 제거하고, 낚싯대를 고정하기 위해 갯바위에 뚫은 구멍 180여 곳을 복원했다. 무단출입과 불법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순찰을 진행해 33건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813kg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했다.

그 결과 국립공원연구원의 갯바위 오염 실태 조사에서는 '심각' 수준이었던 아홉 곳이 1년여 만에 '경미'하거나 '보통' 수준으로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폐납·해양 쓰레기·생태계 훼손 정도를 등급화해 평가한 '갯바위 종합 오염도'는 10.3점에서 6.5점으로 37% 감소했다. 따개비 등 생태계 건강성을 보여주는 해양생물의 평균 서식 밀도는 1㎡당 5.54 개체에서 8.77 개체로 58% 높아졌다.

생태 휴식제가 오염도 감소와 생태계 건강성 회복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이를 거문도 전 지역에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이용으로 훼손이 심각한 국립공원 일부 지역에 대한 출입을 한시적으로 통제하여 자연성 회복을 유도하는 휴식년제의 효과는 그동안 지리산 등 여러 곳에서 입증됐다. 오염이 심하고 보호가 절실한 다른 국립공원 지역에도 생태 휴식제를 적극 확대할 필요가 있다.

無 等 鼓

LP의 추억

'에로이카'는 베토벤 교향곡 3번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는 오디오 기기 이름으로 익숙하다. 한때 '전축'의 대명사였던 '에로이카'는 '인켈' '롯데 파이오니아' '아남 홀리데이' 등과 함께 인기를 누렸다.

오디오가 있는 곳에는 LP가 있었다. 대학 시절, 좋아하는 가수의 LP를 구입하는 건 큰 즐거움 중의 하나였다. 1948년 미국에서 첫 선을 보인 LP는 오랜 기간 음악 애호가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이후 CD와 MP3가 등장하고 스트리밍이 대세가 되면서 LP의 전성기는 사라진 듯했지만 최근 레트로 붐을 타고 다시 화제의 중심이 됐다.

조용필·임재범 등 왕년의 가수들이 옛 앨범을 LP로 다시 발매하고 블랙핑크, 방탄소년단 등 아이돌 그룹도 LP 제작에 동참했다. 새롭게 발매되는 LP는 팬 서비스 차원에서 '한정판'으로 찍는 경우가 많아 경쟁이 치열하다. 아이유의 '꽃갈피' LP 중고 음반이 200만 원 넘게 판매된다고 하니 'LP 재테크'라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몇 년 전부터 김광석·김현식·산울림 등의 초기 LP 앨범이 몇 십만 원에 거래된다는 소식을 듣고 턴테이블을 없애 버린 후 오랫동안 듣지 않았던 LP 음반들을 한 번씩 살펴봤던 기억도 난다.

클릭 한 번이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편한 세상이지만, 사람들은 번거로운 절차를 무릅쓰고 LP가 전하는 아날로그의 매력에 빠져든다.

지난 주말 담양읍사무소 옆 옛 청소년문화센터 자리에 문을 연 담양 LP충전소에 다녀왔다. 광주MBC가 소장한 오리지널 LP 등 2만 3000여 장과 CD 5000장을 보는 순간 규모에 놀랐다. 아직 전시 공간이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는 않지만 일부 음반은 직접 들어 볼 수 있다. 좋아하는 '시나위' 1집 등이 걸려 있는 3층에서 '퀸'의 'We will rock you'를 들을 땐 뛰어난 음향 시설 덕에 행복한 경험을 했다.

1층에서 판매하는 커피를 한 잔 들고 편안한 공간에 앉아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어도 좋다. 오랜만에 만나는 LP는 자연스레 옛 추억을 떠오르게 한다. 특히 비틀즈 팬이라면 그들의 오리지널 LP 음반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21
전 남 본 부 220-0680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